

2023년 7급 공채 언어논리 시험문제는 문제 유형과 구성의 측면에서 이전에 실시되었던 7급 공채 언어논리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일치추론, 빈칸추론, 사례찾기, 문장수정, 연역논증, 강화약화 등의 빈출 유형들이 골고루 출제되었습니다.

문제 유형별로 난도 및 변별력을 끌어올리는 출제장치가 사용되지 않은 문제들이 대부분이었으며, 이로 인해 2022년 대비 전반적인 시험의 난이도가 하향평준화가 되었습니다. 2023년 시험에서도 2022년 시험과 마찬가지로 귀납논증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문제들이 인책형 기준으로 11번, 17번, 19번으로 출제되었는데, 이 중 17번과 19번 문제가 문제 해결에 대한 부담감을 주는 첫 인상을 느끼게 한다는 점에서 올해 시험에서 상대적으로 변별력을 가르는 기능을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023년 7급 공채 언어논리 시험에서도 이전년도들의 7급 공채 언어논리 시험문제들과 마찬가지로 언어 PART에서 논리학의 기호화를 응용하면 더욱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지문 및 <보기>에서 주어진 문장을 논리적 기호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명제의 표준형식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2023년 7급 공채 언어논리 시험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언어 PART의 문제들을 통해 논리적 사고력을 측정하고자 하는 출제 의도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전반적인 시험의 난도는 쉬웠으나,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문제들이 분명 존재하는 시험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푸는 것을 시험 시간 후반부로 미루는 전략을 사용했다면 88점 이상의 득점은 무난하게 가능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